

SK

국내 정유사 최초로 해외 석유물류기지 확보

국내 최대 에너지/화학 기업인 SK주식회사가 국내 정유사 최초로 아시아 석유 거래의 중심지인 싱가포르의 석유화학단지에서 대규모 석유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亞太지역 에너지·화학 新메이저'로의 도약을 위한 해외 물류網 구축에 나섰다.

SK주식회사는 지난 1월11일 싱가포르의 주룽섬(Jurong Island)에 건설 예정인 대규모 석유물류기지의 지분 1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물류기지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있는 싱가포르의 주룽섬에 530만 배럴(84만m<sup>3</sup>)의 석유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와 입출하 설비인 부두로 구성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 2006년 7월부터 상업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에는 총 2억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며, ▲두바이 국영석유회사인 ENOC 산하의 석유터미널 전문회사인 호라이즌 터미널(지분율 52%), ▲한국의 SK주식회사(지분율 15%,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SKEA를 통해 투자), ▲쿠웨이트의 전문 석유 트레이딩 회사인 인디펜던트 석유(지분율 15%), ▲세계적인 전문 석유 트레이딩 회사인 비톨(Vitol)의 자회사인 말탱크(지분율 10%), ▲아프리카 지브티에 소재한 투자전문회사인 보레(지분율 8%)가 주주로 참여한다.

SK주식회사는 싱가포르 석유물류기지를 통해 아시아 석유 거래의 중심인 싱가포르와 고성장 지역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 및 트레이딩(Trading)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에도 물류기지를 확보해 韓-中-싱가폴을 잇는 석유물류網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SK주식회사는 이 같은 석유물류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亞太지역 석유 트레이딩 분야의 메이저 플레이어(Major Player)'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

SK

무디스, SK주식회사  
신용등급 전망 Positive로 상향 조정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지난해 12월 22일 SK주식회사의 신용등급 전망(Outlook)을 Ba2 Stable에서 Ba2 Positive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K주식회사의 지속적인 영업 성과 개선, 부채 규모 축소, 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 및 SK네트웍스 정상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주된 상향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이번 상향조정은 한국내 석유사업의 전략적 중요성 및 시장 내 SK주식회사의 선도적 위치 등에 기인하는 것이며 SK주식회사가 현재 보유중인 21%의 SK텔레콤 주식도 유동성 위기 발생 시 잠재 유동성 확보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SK주식회사 관계자는 이날 무디스의 전망 상향에 대하여 Stable에서 Positive로의 상향 조정은 SK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현황을 국제적인 신용평가 기관이 인정한 것이며, 이는 투자등급으로의 상향 조정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SK

정신분열증 치료용  
신약후보물질 국내 임상시험 개시

SK주식회사는 독자개발한 정신분열증 치료용 신약후보물질 YKP1358이 美FDA 임상시험 승인에 이어 한국 식약청에서도 임상시험 승인을 얻어 2월부터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개시한다고 지난 1월19일 밝혔다.

YKP1358은 지난 2003년 SK주식회사에서 신약개발을 담당하는 바이오팜 사업부가 독자개발한 정신분열증 치료용 신약후보물질로, 같은 해 9월 美

FDA 임상시험 승인을 얻고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임상1단계 시험을 진행해 왔다.

미국에서 진행된 YKP1358에 대한 임상1단계 시험 결과, 비교 약물에 비해 최대내약용량에서 100배 수준의 내약성(Tolerance)을 보였고, 약물동력학 등의 분야에서도 비교약물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K주식회사는 이 같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해 국내에서 SK브랜드의 신약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SK브랜드 신약의 글로벌 개발 전략'에 따라 국내 임상개발 자료를 근거로 중국/일본 등의 아시아 시장과 미국/유럽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임상개발도 추진해 SK브랜드를 단 글로벌 신약으로서의 가능성도 타진할 계획이다.

## SK

### 2차전지 핵심소재 국산화 성공



SK주식회사는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 세번째로 2차전지인 리튬이온전지(Lithium Ion Battery)의 핵심소재인

세퍼레이터(Separator)를 독자개발하고 사업화에 착수한다.

세퍼레이터는 리튬이온전지의 양극과 음극의 접촉을 막고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기공을 통해 전해질 이온은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박막으로 전지의 안전성을 부여하는 리튬이온전지의 핵심 소재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아사히화학(Asahi, 日)과 토넨(Tonen, 日) 둘 뿐이라, 이 두 개 회사가 세계 시장을 양분해 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노트북PC 등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의 증가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국산화는 물론 안정적인 공급물량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SK주식회사는 40여년간 축적해 온 화학기술과 최첨단 나노 테크놀로지(Nano Technology)를 적용해 작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금년말 국내 최초로, 세계에서는 세번째로 독자개발함으로써 국산화에 성공했다.

현재 SK주식회사는 'SK기술원(대덕, 원장 : 박상훈 전무)' 내에 설치한 시험생산설비(Demo Plant)를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국내외 유수의 리튬이온전지 완제품 업체들로부터 시제품에 대한 적용 테스트를 받은 결과, 기존 일본제품에 비해 성능이 동등 이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SK주식회사는 현재 시험생산설비를 기초로 양산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

며, 내년 중에는 양산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주식회사는 개발 기술이 일본 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이라, 관련 기술에 대해 국내외에 특허도 출원해 놓은 상태이다.

최근 2차전지 완제품 분야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선전해 왔으나 세퍼레이터 같은 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금번 세퍼레이터 독자개발로 차세대 성장산업인 2차전지 소재분야에서도 對日기술의존을 탈피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은 전세계 리튬이온전지용 세퍼레이터의 30%를 사용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나 하이브리드(Hybrid) 전기자동차의 발달에 따라 향후 그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SK

### 백두산 관광도로 원료 2000t 보내

SK주식회사는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대표 김중배)와 함께 백두산 관광도로 보수를 위한 아스팔트 원료 2000t을 선적, 출항식을 가졌다고 지난 1월17일 밝혔다.

SK주식회사 특수제품사업부 금창국 상무는 "민간 차원의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에 동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통천시 피해복구용 아스팔트 지원에 이어 백두산 지역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원료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칼텍스정유

2005년도 LG칼텍스 시무식



LG칼텍스정유는 지난 1월 3일 LG강남타워 아모리스홀에서 허동수 회장을 비롯한 5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거행했다. 허동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안팎으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기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허동수 회장은 '획기적 가치창출'과 '조직역량 강화', '새로운 CI조기정착'을 올해의 경영방침으로 정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성공을 위한 역량 집중, 미래성장엔진의 확보, 우수인재의 확보와 육성,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새로운 CI의 조기 정착 등이 올해의 중점실행 전략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공장에서 4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대강당에서 시무식이 거행되었다. 생신본부장이 취임식을 겸해 열린 이번 시무식에서 허진수 부사장은 허동수 회장의 신년사를 대독하고, 원가절감과 시설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친화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것을 당부했다.

LG칼텍스정유

화학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LG칼텍스정유는 지난해 12월 21일 과천종합청사에서 환경부·기업체·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학물질배출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참여기업들이 공정개선,

자원회수시스템, 누출탐지보수시스템 등을 통해 화학물질 배출량을 2001년을 기준으로 2007년까지 30%, 2009년까지 50%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동수 회장은 KBCSD와 참가기업들을 대표한 연설을 통해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벌이는 이러한 노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언급하고, 새로운 환경정책을 제시하는데 앞장설 것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 참여기업에게는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환경친화기업 선정시 가산점 부여, 환경오염방지금 등을 통한 비용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협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협약체결 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LG칼텍스정유

허동수 회장  
KBCSD 송년간담회 참석



허동수 회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송년간담회에 참석했다. 기후변화협약과 관

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및 관련기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송년간담회에는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광결호 환경부 장관을 비롯, 국내 주요기업의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각계 인사 30여 명이 참석했다.

KBCSD의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허동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2월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국회 및 정부 등 범국가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LG칼텍스정유

허동수 회장,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 참석



허동수 회장은 지난 1월 7일 전경련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월 16일부터 발효되는 교토의정서에 대한 관계기관 및 업계의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허동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지와 경영혁신을 통한 획기적 기술과 대체에너

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행동 계획'을 수립해 기후변화협약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 LG칼텍스정유

사회복지시설에 난방유 제공



LG칼텍스정유는 지난해 12월 16일 본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의 양로원과 고아원 등에 총 12억 5천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동후원 조인식을 열었다. LG칼텍스정유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는 전국의 1,300여 개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여 '난방유 후원 티켓'을 전달한다. 후원 티켓을 받은 복지시설은 가까운 회사 계열주유소를 찾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난방유를 배달 받을 수 있다.

LG칼텍스정유는 또 2005년 1월 16일까지 고객들이 'Sigma6 보너스카드'로 주유하면 이를 별도 포인트를 적립해 사회복지시설 겨울 난방기금으로 지원한다.

### 인천정유

제5회 소방경진대회 개최

인천정유는 "불조삼강조의 달(11월)"을 맞이하여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의 화재예방의식고취와 화재진압 능력배양을 위해 지난해 11월 3일 인천공장에서 제5회 부서대항 소방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총 6개팀(협력업체 포함), 1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소방경진대회는 속도방수, Oil Pan 화재진압, Flange Leak 화재진압 등의 경진종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호응도 고취를 위해 소방관련 "안전 퀴즈"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방경진대회에서는 평소에 갈고닦은 화재진압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공무원이 최우수상을, 정유팀이 우수상을 각각 차지하였다.

### 인천정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인천정유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 임직원 및 사업장 내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와 인천공장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발생의 사전 예방 및 건전한 직장윤리관 정립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관련법령과 타사의 실제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을 실

## 인천정유

### 2004년 총무식 및 2005년 시무식

인천정유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공장 및 서울사무소에서 다과회형식의 총무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한송호 사장은 임원진과 함께 각 부서 근무현장을 방문하여, 일일이 근무자들과 악수를 하고,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

한송호 사장은 지난 한해 동안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사경영 정상화를 위해 희생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2005년에도 좋은 결실이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인천정유는 공식적인 2005년 시무식을 한송호 사장의 신년사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신년사에서 한송호 사장은 M&A 실현과 조속한 경영정상화가 2005년 경영목표임을 강조하고 더욱 혼연일체된 모습으로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시종 진지한 가운데 교육에 임하였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임직원들은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사내 성희롱 예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에스-오일

**‘빅보너스 페스티벌’ 4억원 경품 행운 뉴렉스텐 4대 등 1만명에 선물 ‘평평’**

에스오일은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2005년 2월 1일까지 ‘카 러브 에스-오일 보너스카드’ 고객에게 4억원 상당



의 경품을 제공하는 ‘빅보너스 페스티벌’을 벌이고 있다.

‘빅보너스 페스티벌’은 보너스카드 회원이면 주유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응모된다. 2월 1일까지 보너스카드에 가입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9,160명에게 최고급 SUV 뉴렉스텐 (4명), 최신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80명),

MP3 플레이어(150명), 보너스포인트 5천점(8,926명)을 제공한다. 추첨일은 오는 2월 15일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보너스카드 신규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즉석 경품행사도 진행한다. 행사기간에 가입한 신규회원 중 8백 40명에게 최신 휴대폰 또는 디지털 카메라(80명), MP3 플레이어(1백 60명), 보너스포인트 3만점(6백명)이 제공된다.

### 에스-오일

**온산벼 1만 3천가마 수매**



에스오일은 지난해 12월 19, 27, 29일 세 차례에 걸쳐 농민들이 희망한 벼 1만 3천 가마(7억 5천 4백만원)를 모두 구매했다. 수매 가격은 40kg들이 1가마당 5만 8천 20원으로 온산지역 1백 28농가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온산 지역 농민들은 올해 생산한 2만 8천여 가마(40kg기준)의 벼 가운데 농가 자체소비량과 정부수매량을 제외한 전량(전체생산량의 약 47%)을 안정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수매한 벼는 온산농협에서 보관, 가공하여 회사임직원 가정에 공급하거나 온산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에쓰-오일

‘영광과 도약’ 새해 경영목표 공유  
2005년 시무식...우수사원상 15명 표창



에쓰오일은 2005년 1월 3일 오전 9시 여의도 본사와 울산공장 등 전국 사업장별로 시무식을 갖고 힘찬 새 출발을 결의했다.

여의도 63빌딩 엘리제홀에서 열린 본사 시무식에서 알 아르나우트 대표이사 CEO는 신년사를 통해 올해 경영목표를 “새로운 성장기반을 다지는 해”라고 말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 모색 △마케팅 분야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통한 회사의 성장기반 강화 △전사적 자원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올 한 해가 또 다른 영광과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본사와 공장 시무식에서는 경영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한 ‘2004년 우수사원’ 15명을 표창했다.

에쓰-오일

국제백신연구소에 2천만원 기부

에쓰오일은 지난 2004년 11월 30일

국제백신연구소(TVI)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어린이를 위한 백신의 연구개발, 생산보급, 접종확대를 위해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에 지난 해 2천만 원을



기부한 공로다. 감사패 전달식은 지난 11월 30일 열린 국제백신연구소 한국 후원회 행사장에서 있었다.

에쓰-오일

대졸 인턴사원 119명 선발

에쓰오일은 지난 해 12월 5일 대졸 인턴사원 1백 19명(인문계 20명, 자연계 99명)을 선발했다.

에쓰오일은 온라인을 통해 원서를 접수, 인성검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했다. 인턴사원들은 6개월 동안 공장에서 생산공정을 배운 다음 인문계 출신은 현업부서에 배치돼 직무실습(OJT)을 진행하고, 자연계 출신은 공정 집중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턴사원들은 지난 1월 3일 첫 출근하였다.

에쓰-오일

울주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백만원

에쓰오일은 지난 해 12월 19일 울산시 울주도서관에 도서구입비 2백만원을 기탁했다. 에쓰오일은 울주군민의 정서함양과 지식정보 제공한 양서 구입에 사용될 것을 기대하며 김정자 관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 현대오일뱅크

### 현대오일뱅크, 최첨단 ERP 시스템 도입

현대오일뱅크는 생산과 영업, 경영지원 업무 등 전 부문에 걸쳐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고 지난 1월 24일부터 본격적인 구축작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부터 PI추진팀을 가동하고 프로세스혁신(P)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현대오일뱅크는 오는 2007년 2월까지 총 150억 원이 들어가는 2년짜리 초대형 IT 프로젝트로 ERP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일명 '리프 세븐(Leap 7)' 으로 불리는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현대오일뱅크는 영업·인사·생산·재무·구매·관리회계 등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을 통합관리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생산과 영업, 구매, 제품 배송 등의 실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구축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직영 주유소 및 충전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원활한 의사 소통이 실시간 가능해질 전망이다. 재무 회계 등 경영관리시스템과 보너스 카드 고객에 대한 CRM(고객관계관리) 기반의 정보도 통합 DB로 운영되는 등 인적 물적 자원을 표준화된 업무 시스템으로 통합, 기업 전 부문의 사업진행을 효율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대오일뱅크는 2006년 4월까지 영업·구매·생산·설비·재무·경영관리·인사 등 대부분의 회사업무 프로세스 및 거래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후 10개월에 걸쳐 수요 예측, 고객분석 데이터관리, 전략적 경영관리 등의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현대오일뱅크

현대오일뱅크 임직원과 고객 이웃사랑 '훈훈'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고객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와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



료를 돕기 위해 연초부터 발벗고 나섰다.

서영태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지난 1월 12일 무의탁 장애아동 보호 시설인 서울 마천동 소재 '소망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난방유를 기증하고, 장애아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서사장은 소망의 집 박현숙 원장에게 "봉사활동을 하러 왔지만 드리고 가는 것보다 배우고 가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망의 집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유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대오일뱅크는 추운 날씨에 난방유 걱정을 많이 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한국복지재단에 1억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보너스카드 고객들이 자사 계열 주유소를 이용하면서 모은 보너스카드 포인트를 기증 받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하는 뜻깊은 행사를 1월중 가질 예정이다.

### 현대오일뱅크

제1회 오일뱅크배 주니어 스키대회 '성황'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염원하고 미래 꿈나무 스키 최강자를 가리는

제1회 오일뱅크 전국 주니어 아마추어 스키대회가 성황리에 막을내렸다.

현대오일뱅크와 국민생활체육전국스키연합회 주최로 지난 1월 16일 강원도 용평 리조트 메카그린슬로프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총 300여 명의 초등 학교 미래 꿈나무들이 참여해 그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남녀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공식대회 입상경력이 없는 순수 아마추어들이 참가해 펼쳐진 이번 대회의 MVP는 명원초등학교 강윤재 군과 성림초등학교 김누리 양이 선정됐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대회 MVP 남녀 각 1명에게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할 수 있는 가족 여행권을 상품으로 제 공하고, 부문별 상위 입상자들에게는 최고급 스키 세트와 플레이 스테이션 게임기, 고급 디지털 카메라 등 푸짐한 상품을 선물했다.

### 현대오일뱅크

생산본부,  
TPM 추진 킷오프 결의대회' 개최

현대오일뱅크 생산본부 현장 전문직을 포함한 임직원들은 지난 1월 14일 TPM 추진 소분임활동 킷 오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재해 제로, 고장 제로, 손실 제로를 다짐했다.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이란 상시 생산혁신운동으로 TRI 1000 즉, '도전하는 즐거움, 최고의 일터를 만들자'라는 캐치 프레이즈 아래, 현장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설비의 효

율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활동을 말한다.

한편 이날 킷오프 결의대회에 앞서 생산본부는 지난해 10월 14일 생산본부 TPM 임간부 모델분임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임원에서부터 교대과장까지 모두 134명의 임간부들이 10개조를 구성해 참여한 임간부 모델분임활동은 매주 현장진단과 함께 자주 보전 개선 활동 등을 펼쳐며, 현장 혁신활동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생산본부의 이 같은 TPM추진 활동들은 향후 실천하는 TPM, 예방하는 TPM, 참여하는 TPM을 실현하여, 설비고장 제로, 제품불량 제로, 장치와 근로자의 재해 제로 체제를 구축하는 현대오일뱅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 현대오일뱅크

2004 장애인 먼저 실천대상 수상

현대오일뱅크 서영태 사장이 지난해 12월 9일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로부터 장애인 먼저 실천대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96년 4월 출범, 각계의 호응 속에 장애인들의 인권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 권익보호 단체.

현대오일뱅크는 장애인 고용 및 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사

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직업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장애인공단과 연계해 주유소 직무분석 및 환경점검을 통해 정유업계 최초로 정신지체인 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 대기업으로는 드물게 의무고용률 2%를 상회하는 2.5%의 장애인을 고용해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 대한석유협회

협회직원 장관 표창 및  
공로자 포상 실시



대한석유협회 안병원 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무식을 갖고 한 해동안 업계발전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우수사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했다. 이날 최우수상을 받은 직원은 대외협력팀 주정빈 부장, 김영철 과장, 황순철 대리 등 3명이다.

한편 이날 유사회발우 단속에 이바지한 공로로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은 대외협력팀 김영철 과장 및 환경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대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 표창을 받은 대외협력팀 김주현 부장에게 표창장 수여식도 실시하였다.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2005년도 신년인사회 개최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는 지난 1월 6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성재갑 LG석유화학 회장, 이영일 호남석유화학 사장, 고흥식 삼성토탈 사장, 노기호 LG화학 사장, 김종광 한국바스프 회장, 배영호 코오롱화학 사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선진 메이저 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 관세장벽 해체 문제, 기후변화협약 발효 등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올해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남부발전 신년 비전 선포식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1월 5일 본사에서 2005 비전 선포식을 갖고 세계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Clean Company 도약 원년을 선언했다. 이날 김상갑 사장은 “전력시장의 제한적 사업 영역에서 벗어나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기술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세계일류 수준의 수익성 효율성 책임성 및 윤리성을 갖추어 대내외 고객으로부터 존경받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자”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 윤리적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도약하는 의미로 Clean Company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 한국서부발전

### 세계 최대 조력발전단지 조성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서산(가로림만)에 480MW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 경영을 적극 추진한다.

서부발전은 2005년 2월까지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산자부와 충청남도과 사업협의를 벌이고, 2006년 2월까지 현장 세부조사 용역을 추진해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2006년 6월까지 2200kW 소수력발전기를 태인화력 인근 바다에 설치하고, 1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2006년 3월까지 태인화력발전소에 설치기로 했다. 아울러 서부발전은 1500~2000kW급 풍력발전기 설치사업을 본격 추진기로 했다.

특히 서부발전은 태인화력 6개 호기와 평택화력 4개 호기에 질소산화물 저감설비를 2007년 8월까지 설치해 현재 250ppm인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치를 100ppm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서부발전은 또 2005년 말까지 태안

중수도 설비를 건설하고, 저탄장 비산방지 신기술 방풍벽도 2006년 10월까지 설치해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을 획기적으로 저감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부발전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기반모형을 오는 9월까지 공동 개발하고, 전력연구원과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기로 했다.

## 현대중공업

### 천연가스 추출설비 수주

현대중공업이 한국석유공사가 추진 중인 베트남 해상 가스개발 프로젝트의 고정식 천연가스 추출설비를 1억 5000만달러에 수주했다. 베트남 해상 가스개발 프로젝트는 베트남 남쪽 해안에서 320km 떨어진 남콘손 해역에 위치한 11-2광구 룡도이 가스전에 설치되며 전체 중량이 1만3000톤에 달한다.

이번 공사는 석유공사가 주요 기자재를 공급하고 현대중공업이 설계와 제작, 설치, 시운전을 맡음으로써 한국이 단독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투입해 해외 유전을 개발하는 첫 사례다. 현대중공업은 울산 해양공장과 현대미포조선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비나신 조선소에서 분리 제작한 후 오는 2006년 9월까지 현지에 설치해 시운전을 마칠 계획이다.

**LG칼텍스정유**

캄보디아 해상광구서 원유 발견



LG칼텍스정유가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공동 참여중인 캄보디아 해상 블록A 광구에서 양질의 경질 원유 발견에 성공했다. LG칼텍스정유는 지난 1월 13일 “캄보디아 서부해상 130km 지점에서 4개의 탐사정을 시추한 결과, 원유 함유층의 두께가 탐사정에 따라 41~139피트에 이르고 시추된 원유는 API 44에 해당하는 양질의 경질 원유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원유가 발견된 캄보디아 블록A 광구는 총 면적 6278km<sup>2</sup>에 평균수심 70~80m에 달하는 해상 광구로, LG칼텍스정유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미국, 일본회사들과 공동으로 물리탐사 및 시추탐사 작업을 진행해 왔다.

LG칼텍스정유는 탐사 1기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월말까지 1개의 탐사정을 추가로 시추, 이들 5개 탐사정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원유의 매장량 및 경제적 가치 등을 정확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정밀분석을 토대로 캄보디아 해상 광구에 대한 탐사2기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석유공사**

2008년 자주개발 10% 달성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핵심 진출 6개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생산 유전의 공격적 매입 및 대형 투자를 추진하는 등 매년 8~10개의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해 2008년 정부의 자주개발을 목표 1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의 신규 추진사업으로는 동시베리아 유전개발로 러시아 캄차카 대륙붕과 사할린 해상 베닌스키 광구의 탐사·개발사업과 카스피해 유전개발 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밖에 예멘 70광구, 중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등에 사업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마함벳 해상광구, 아제르바이잔의 대형광구 사업, 리비아·베트남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다. 또한 베트남 15-1, 영국 캡틴,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 등 기존 참여 생산 광구의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고, 베트남 11-2광구 등 탐사성공 광구의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동시베리아, 카스피해 등 전략 지역에 대한 공격적인 자산매입을 통한 신규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공사 컨소시엄**

리비아 탐사광구 입찰 참여

한국석유공사와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1월 29일 리비아 석유 탐사광구 입찰에 참여한다. 이번 입찰은 특히, 개발이 용이하고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중동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세계 자원개발

메이저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 컨소시엄은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고 있으며 회사 관계자는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입찰에 성공할 경우, 큰 성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입찰은 미국의 리비아 경제 제재 해제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총 15개 탐사광구의 입찰이 진행된다.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 A-3 광구 지분 매각 압박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는 미얀마 A-3 광구 지분 매각이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A-3 광구 지분 매각을 위해 인도 업체랑 협의중”이라며 “매각 작업이 막바지단계다”고 밝혔다. 미얀마 A-3 광구는 최근 대우인터내셔널이 1차 탐사 결과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한 A-1 광구에 인접해 있으며 2004년 2월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정부로부터 광구개발권을 획득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 지분 매각을 통해 투자비를 지분율대로 분담하게 된다”며 “A-1 광구 개발을 감안했을 때 기존 파트너들과 그대로 A-3 광구 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인터내셔널은 최근 1차 탐사를 통해 A-1 광구에서 약 11조에서 17조입방피트에 이르는 가스층을 확인했으며 빠르면 올 상반기 평가를 끝내고 올 하반기부터 개발할 예정이다.